자유연제 4-2

전외측 대퇴천공지 유리피판을 이용한 삼차원적인 구강내 재건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탁민성* · 이장현 · 강상규 · 고윤우

구강암 절제술 후에 발생된 결손부위의 재건은 수술 후의 연하작용과 말하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피판들이 시도 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재건을 위해서 선택되어지는 피판의 조건으로는 구강내의 사강(dead space)을 막아주고, 남아있는 혀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타액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얇고 유연한 피판을 사용해야 하며, 감각성 피부피판(sensate flap)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외측 대퇴천공지 유리피판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유용한 피판으로서, 피판의 크기가 크고, 혈관경의 길이가 길며, 피판의 두께를 두껍게 혹은 얇게 만들어 재건이 필요한 부위의 모양에 따라 피판의 두께를 삼차원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두 팀으로(two-team approach) 수술이 가능하여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여부의 손상을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으로는 일부 남자에서 피판에서 체모의 성장이 가능하고, 혈관경의 해부학적 변형이 흔하기 때문에 수술 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본 교실에서는 구강암 수술후의 결손에 전외측 대퇴천공지 유리피판을 사용하여 결손의 모양에 따라 피판의 두께, 모양, 조직의 구성성분 등을 조절하여 삼차원적으로 재건을 시행하였으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